

2022 OPEN! 14.

영적 4계절을 통과한 사람! 안식과 여유를 선물로 받는다.

[전도서 3: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 정한 때 - 하나님의 시간

[시편 102: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지난주 정한 때에 대하여 나누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열리는 은총이 있음을 말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계절'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은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이다. 성경은 창세기 1: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태초에 (베레쉬트)는 '처음에'라는 의미이다. 처음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은 본질이다. 본질은 원형의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 시작 안에 끝이 있고, 완성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시작은 동시에 '끝'을 내포하고 있다. 시작은 시작의 속성이며, 시간은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 구원도 '시작'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 말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끝'과 '마지막'이 영광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절'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다.

[다니엘 2: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다니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 안에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그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알았기 때문이다.

(1) 전도자의 고백

[전도서 3:1-8]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1]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새번역)

[Ecclesiastes 3:1, KJV] To every thing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n. (KJV)

놀라운 지혜가 있다. 1절이다. 모든 일에는 '타임워치'가 부착되어 있다.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씨를 심는 그 순간 열매까지 가는 '타임워치'가 부착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우연은 없다. 그냥 일어나는 없다. '만사가 때가 있다' 라고 말한다. (알맞은 때) 우연은 없다. 알맞은 때에 대한 이해는 영어 성경에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다. 모든 일이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곳을 말한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2) 사탄의 두려움

[요한계시록 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놀라운 말씀이다.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마귀는 분내고 있다. 분내고 있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다. 분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최악의 상황이다. 왜 그런가? 자기가 멸망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지혜란 무엇인가? 때를 아는 것이다.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2. 때를 아는 은총

(1) 시간감각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4계절'을 지나 보아야 한다. (절기마다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 정한 절기의 이유가 있다. 계절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영적 4계절을 지나야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다.

‘시간감각’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계절이 아니어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 아침, 낮, 저녁, 한밤중이 무엇인지 아는 것 / 봄 뒤에 무엇이 오는지, 겨울 뒤에 무엇이 오는지, 새벽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시간감각’이다.)

(2)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겨울을 지날 때, 한밤중을 지날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확신이며, 다른 하나는 여유이다.

ㄱ) 확신

확신은 무엇인가? 고난의 터널 뒤에 반드시 승리와 보상이 있다는 것이다.

[시편 23:4-5]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5절로 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차고 넘치는 보상과 승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고난의 계절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는 첫번째 선물이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와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확신의 선물을 주신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

ㄴ) 여유

하나님의 계절에 대한 시간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유의 축복이다. 그 여유가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인내’ 자체는 어렵다. 그런데 계절을 아는 사람은 ‘인내’ 이후에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끝을 아는 공간이 바로 ‘여유’이다. 그래서 ‘인내’는 여유의 공간 안에 담겨야 한다. 처음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과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내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절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유’를 선물로 받는다. 여유는 승자에게만 있는 성품이다. 패자에게 여유는 있을 수 없다. 쫓기는 자에게 여유는 없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유’이다. 모두가 경쟁과 쫓김 가운데 있기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안식과 여유는 앞으로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체가 된다.

(3) ‘아 그거였구나’

은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은총 받은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아~ 그거였구나.’ 장애물과 터널이 해석되는 순간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3. 은총의 열쇠 ‘순종’

은총의 열쇠는 순종이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딜레이 타임이 있다. 결국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 순종은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처럼 알고 고난의 터널에 진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의 터널과 광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 영이다. 그래서 자녀의 영이 있어야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 계산하는 종은 절대 청지기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순종은 미래의 축복을 받는 현재의 하나님의 열쇠이다. 순종하면 알게 된다. 움직이면 알게 된다. 시작하면 알게 된다. 순종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알기 때문이다. 끝을 알기 때문이다. ‘아~하나님의 축복이 이거였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은 ‘레디컬한 순종’을 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다. 십자가는 가장 레디컬한 순종이다. 그 결과는 승리이며, 상급이다.

4. 순종은 미래의 축복에 대한 예언적 삶을 현재에서 살게 한다.

순종은 현재에서, 하지만 미래에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미래에 과거에 했던 순종의 이유를 알게 된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걱정하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심게 하셨구나. 섬기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정확히 고백하게 된다. 이런 예언적 인생을 살아야 한다. 순종을 통해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된다.

[마태복음 6:19-20]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인생을 보장할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오늘 말씀을 보라. 하늘의 보물은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장 확실한 보험 약관이다. 나를 위한 하늘의 보험이다. 하늘의 보험은 반드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응답으로 온다. 할렐루야.